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매개효과*

강 병 애¹⁾

박 응 임²⁾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통해 매개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25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모형은 남아와 여아 간 경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모델임을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할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양육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자기조절능력, 애착안정성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2019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E-mail: ungim@anu.ac.kr)

I. 서 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혼자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 그리고 행동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다.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충동적인 감정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기조절능력이다(Kopp, 1982; Vohs & Baumeister, 2004). 자기조절능력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 및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설경옥, 2017; 이시형, 2013).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이후의 사회적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유아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발달과업이자 생애 초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해야 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다(이시형, 2013; 정옥분, 2006; Mayer, 1997).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발달을 보이는데, 특히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양옥승, 이정란, 2003; Kopp, 1982). 왜냐하면 유아기는 발달적으로 외부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던 조절이 내면화된 자기조절로 발달하는 시기이며,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즉, 사회·교육적 환경 속에서 행동을 조절하거나 지연하는 능력, 외부의 제한 없이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능력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Kopp, 1982). 더불어 유아기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을 보이게 된다(곽윤정, 2013). 이러한 인지적 발달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익숙한 환경에서의 적응적 조절 및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서은희, 2011; Bronson, 2000). 이와 맥을 같이하여 양옥승(2006)은 자기조절능력을 인지조절과 정서조절로 나누고, 또 다시 인지조절의 하위 요인으로 계획하기와 점검 및 평가하기로 논의하고, 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 인식하기와 정서 억제하기 그리고 대처하기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계획하기와 점검 및 평가하기를 포함하는 인지조절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혜숙, 2018). 정서 인식하기와 정서 억제하기 그리고 대처하기를 포함하는 정서 조절은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임윤주, 2010).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는 생애 초기에 드러나며 전 생애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Eisenberg et al., 1999).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신중하고, 주의 집중력이 높고, 분별력이 있으며 겸손하고 협동적이고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Funder & Block, 1989). 반면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유아

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절한 행동, 낮은 주의집중력 등을 보이고, 아동기 때 낮은 학업 성취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 표출되고 청소년기 행동장애 등이 보고된다(박지현, 송하나, 2010; Bronson, 2000). 이처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은 유아기 이후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서은희, 2011; 정재은, 이종향, 2012; 최민수, 김명복, 2012; 황윤세, 2007). 또한 성차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더 높고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고한다(권수정, 2005; 설경옥, 2017; 이민국, 2011). 반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성차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혹저항과 만족지연 행동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강기숙, 이경남, 2001; 박호선, 2002)를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조영숙, 2008; Hastings, Rubin, & DeRose, 2005). 즉, 어머니는 유아의 발달의 전 영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설경옥, 2017), 많은 선행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다(박선희, 2005; Grewal & Salovey, 2005). 최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재희, 2018; 박수진, 2019; 설경옥, 2017). 심

리적 통제란 애정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유아의 자신감이나 죄책감 자극하기, 실망감 표현하기, 애정철회하기, 고립시키기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기 등을 통하여 유아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arber, 1996). 또한 서양의 문화와 다르게 동양의 문화의 특성상 부모가 자녀를 동일체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애정을 철회하고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등 심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양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김충일, 장유진, 이강이, 2015).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형성을 방해하여 문제행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아의 자율성을 통제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설경옥, 2017). 이것은 유아의 자율적 선택과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심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대는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헬리콥터 맘이나 켄거루족과 같은 단어들이 회자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개입하려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매일신문, 2019. 11. 06).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적으

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주도성과 자율성 및 자기결정능력의 발달을 방해하고(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어머니의 통제적·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성숙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김수연, 2019). 또한 유아에게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고 동일체적 양육을 할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고(박은혜, 201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영숙, 2015) 유아의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등의 기본심리욕구(장유진, 이강이, 2016)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심리적 통제와 부모에 대한 애착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Leondari & Kiosseglou, 200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통제와 애착에 관한 연구를 한 Xiang & Liu(2018)에 따르면 애착안정성이 자율성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김수희(2009)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여자 청소년의 애착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애착에도 유의미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 다른 한편, 부모와의 애착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다(박수진, 2019). 유아에게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는 가정이고, 첫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된다. 유아는 생애초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아동기와 성인기를 넘어 전 생애 동안 지속되면서 양육자 외의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Bowlby, 1979).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표상하게 되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활성화시켜 타인과의 관계형성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된다(Barret & Holmes, 2001). 이러한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에서 형성된 안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애착안정성은 이후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 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고(박혜경, 2014), 사회적 기술이 높았으며(조은정, 정주선, 2011; 황소연, 방희정; 2012),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정숙, 백지은, 2004). 반면,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공격적이고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고립되어 유치원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고 보고된다(Ladd & Price, 1987).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양옥승, 2013; 유수옥, 조유나, 2014). 그러한 이유로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애정을 매개로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애정 철회나 자율성을 통제하는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방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았을 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통제와 자율성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간의 관계에서 애착안정성의 보호요인을 밝힌 Xiang & Liu(2018)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매개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있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서 이를 알아보는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탐색적 차원에서도 의의를 지니면서 동시에 심리적 통제와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에서 애착이 보호요인으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

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세 변인들의 관계성 가운데 통제적인 양육 행동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매개 역할 및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과 올바른 양육 방식에 대한 지침이 되며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어머니 심리적 통제, 유아의 애착안정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구조적 관계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25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한 질문지에 한해, 담임교사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질문지를 평정하였다. Y시에 위치한 S어린이집의 유아의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한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문항 이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어머니 심리적 통제 척도는 김충일, 장유진, 이강이(2015)가 개발한 유아기 부모를 위한 심리적 통제 양육 척도를 사용하였다. 죄책감 유발(6문항), 자율성 통제(8문항), 애정철회(5문항), 동일체적 양육(3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4 ~ .85로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이었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양옥승(2006)이 개발한 유아 자기조절 측정척도 2011년판(양옥승, 2011)을 사용하였고, 교사용평가도구로서 인지조절(18문항), 정서조절(32문항)의 총 5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인지조절의 하위 요인은 계획하기(10문항), 점검 및 평가(8문항)로 나누어지며, 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은 정서 인식(14문항), 정서 억제(9문항), 대처하기(9문항)가 있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 ~ .93으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7이었다. 유아의 애착안정성 척도는 Waters & Deane(1985)의 애착안정성 척도를 이은순(2009)이 수정 보완한 척도로, 총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한편,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Russel과 Kahn, Spoth, Altmaier(1998) 등의 제안에 따라 안정애착 변인을 3개의 문항꾸러미로 나누어 측정변인으로 만들어 자료를 분석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3. 자료 분석

AMOS 21.0을 사용하여 매개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 하였고, 검증된 구조적 관계에서 나타난 매개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와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개발된 구조모형에 대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 검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자기조절능력의 측정모형 검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안정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구조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요인부하량,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02 ~ .54)와 첨도(-.01 ~ .77)의 통계량이 왜도의 절대값 3과 첨도의 절대값 7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아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대업, 2008). 이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자기조절능력의 구성개념들에 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기준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표 1.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

(N=325)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 90%C.I.(LO90~HI90)
측정모형A	207.527	51	.905	.852	.886	.097(.084~.111)
수정모형B	99.617	50	.951	.952	.964	.055(.039~.071)
A:B	$\chi^2_A - \chi^2_B = 107.91$			$df_A - df_B = 1$	$p = .000 < p = .001$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가 기준치인 .90 이하이고, RMSEA는 .01 이하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모형의 적합도를 가장 크게 개선하는 방법인 측정변인 간의 상관을 고려한 수정지수를 기초로 하여 측정변인의 오차항에 공분산을 설정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때 수정지수는 정서억제와 대처하기의 측정변인 간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같은 잠재변인 내 측정변인 간 관계임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1개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99.617$, $df = 50$, $GFI = .951$, $TLI = .952$, $CFI = .964$, $RMSEA = .055$ 로 나타나, GFI, TLI, CFI 모두 기준치인 .90 이상이고 RMSEA 역시 .08 이하로 적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과 수정모형 간 χ^2 수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χ^2 의 차이는 107.91, df 의 차이는 1로 수정모형에서 간명성을 나타내는 자유도는 1만큼 감소하였으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을 107.91 만큼 얻게 되어, 측정모형과 수정모형 사이에 χ^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수정모형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정모형에서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40 이상인 .440~.891로 나타나 그 값이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어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1 참조).

또한, 잠재변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요인에 대하여 잠재변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통제, 애착안정성, 자기조절능력의 잠재변인 신뢰도는 .898~.954로, 평균분산추출값은 .757~.816으로 나타나 모든 값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각각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변인들은 수렴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한편, 한 잠재변인과 다른 잠재변인이 얼마나 다른가를 평가하는 판별타당도의 경우 두 잠재변인 간 결정계수(상관계수의 제곱)가 분산추출지수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2. 측정모형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N=325)

잠재변인	측정변인	<i>B</i>	β	<i>S.E</i>	<i>C.R</i>	<i>p</i>	AVE	개념 신뢰도
심리적통제	죄책감유발	1.000	.709					
	자율성통제	1.166	.823	.100	11.683	***	.763	.927
	애정철회	1.044	.682	.990	10.563	***		
	동일체적양육	1.196	.600	.127	9.437	***		
애착안정성	애착안정성f1	1.000	.742					
	애착안정성f2	.962	.497	.189	5.093	***	.757	.898
	애착안정성f3	.855	.440	.175	4.887	***		
자기조절능력	계획하기	1.000	.888					
	점검및평가	1.126	.885	.059	19.191	***	.816	.954
	정서인식	.731	.718	.049	14.822	***		
	정서억제	.660	.549	.064	10.381	***		
	대처하기	.681	.530	.068	9.9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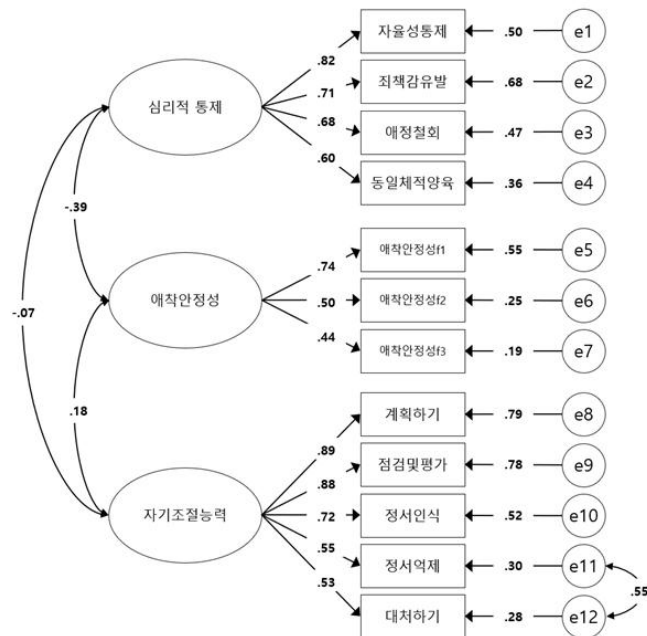
*** $p < .001$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음.

그림 1.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표 3. 잠재변인들의 결정계수와 분산추출지수

(N=325)

	1. 심리적통제	2. 애착안정성	3. 자기조절능력
1. 심리적통제	.763*		
2. 애착안정성	.150	.757*	
3. 자기조절능력	.004	.031	.816*

* 각 요인별 대각선 행렬은 분산추출지수를 나타냄.

그 확인 결과는 표 3과 같이 결정계수는 .004 ~ .150로 나타나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났다. 또한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에 2*표준오차를 더하거나 빼 값이 -.09~.40으로 1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잠재변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매개모형 검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분해를 살펴보았다. 이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계수($r = -.067(ns)$)가 유의미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GFI = .951, TLI = .954, CFI = .965로 모두 .90 이상이고, RMSEA = .054(.038~.070)으로 .08보다 작아 적

절한 수준의 보통 모형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그림 2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경로의 추정치는 ($\beta = -.388, p < .001$)이고, 애착안정성이 자기조절능력에 이르는 추정치는 ($\beta = .176, p < .05$)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 대해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효과성을 분해하였다. 효과성 분해에 제시된 수치는 모두 표준화된 계수이고,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388, p < .001$), 자기조절능력에는 간접

표 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N=325)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44	99.617	51	.951	.954	.965	.054(.038~.070)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325)

	모수	B	β	S.E	C.R	p
심리적통제	-> 애착안정성	-.250	-.388	.052	-4.849	***
애착안정성	-> 자기조절능력	.344	.176	.147	2.346	*
심리적통제	-> 죄책감유발	1	.709			
심리적통제	-> 자율성통제	1.166	.824	.100	11.682	***
심리적통제	-> 애정철회	1.044	.682	.099	10.562	***
심리적통제	-> 동일체적양육	1.196	.600	.127	9.437	***
애착안정성	-> 애착안정성f1	1	.743			
애착안정성	-> 애착안정성f2	.961	.497	.188	5.102	***
애착안정성	-> 애착안정성f3	.855	.439	.175	4.889	***
자기조절능력	-> 계획하기	1	.888			
자기조절능력	-> 점검 및 평가	1.126	.885	.059	19.191	***
자기조절능력	-> 정서인식	.731	.718	.049	14.822	***
자기조절능력	-> 정서억제	.660	.549	.064	10.381	***
자기조절능력	-> 대처하기	.681	.530	.068	9.9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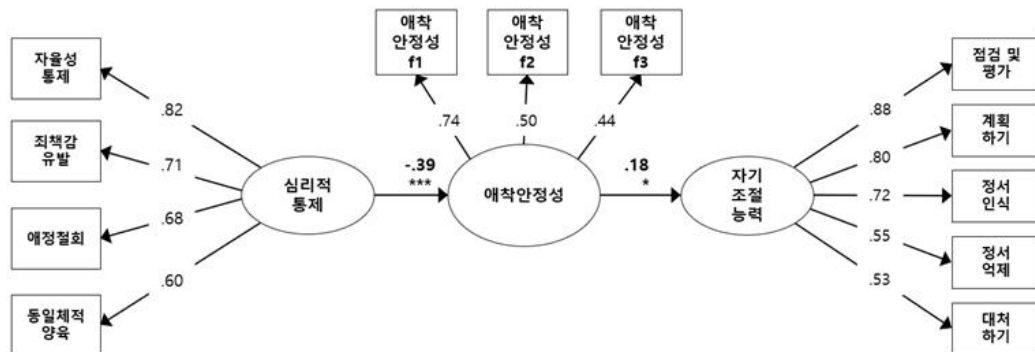
* $p < .05$. *** $p < .001$.주: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Z = -2.104$, $p < .05$; $\beta = -.068$, $p < .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자기조절능력에 직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beta = .176$,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N=325)

모수			Sobel	Boostraping	
			Z	직접효과	총효과
심리적통제	->	애착안정성		-.388***	-.388***
심리적통제	->	자기조절능력	-2.104*	-.068*	-.068*
애착안정성	->	자기조절능력		.176*	.176*

* $p < .05$. *** $p < .001$.

2. 구조모형의 성차 검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의 성에 따라 표준적재치 및 공분산이 다르다는 비제약모형(A)을 baseline으로 설정하고, 성과 관계없이 표준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측정동일성을 비교하는 측정제약모형(B)과 구조공분산까지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구조동일성을 비교하는 구조공분

산 제약모형(C)으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과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측정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악화되었음이 발견되었다($A:B \rightarrow \Delta\chi^2 = 17.877$; $\Delta df = 9$; $p = .037 < .05$). 그러나 비제약모형과 구조공분산 제약모형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A:C \rightarrow \Delta\chi^2 = 19.285$; $\Delta df = 12$; $p = .070$, 표 7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 7. 연구모형의 성차 (N=325)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	54	145.349	102	.933	.958	.968	.036(0.22~0.49)
B	45	163.226	111	.925	.953	.961	.038(.025~.050)
C	42	164.634	114	.923	.956	.962	.037(.024~.049)
D	24	1466.774	132	.525	.000	.000	.177(.169~.185)
A:B	$\chi^2_{B-A} = 17.877$			$df_B - df_A = 9$		$p = .037 < p = .05$	
A:C	$\chi^2_{C-A} = 19.285$			$df_C - df_A = 12$		$p = .070 > p = .05$	
B:C	$\chi^2_{C-B} = 2.689$			$df_B - df_A = 3$		$p = .704 > p = .05$	

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C: 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Structural Covariance)

D: 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모형이 유아의 성에 따라 모형의 구조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아와 여아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통제에서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경로의 추정치가 남아 $\beta = -.416(p < .001)$, 여아 $\beta = -.350(p < .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애착안정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의 추정치에서는 남

아 $\beta = .223(p < .05)$, 여아 $\beta = -.104(ns)$ 으로 추정계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9, 그림 3, 그림 4 참조).

따라서 각 집단 경로계수의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수 사이에 C.R(Critical Ratio)을 알아본 결과, 남아와 여아에서 나온 라벨이 만나는 두 경로계수의 C.R이 0.150로 나타나 $t(\pm 1.96)$ 보다 작아서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표 8. 남아의 경로계수

(N=158)

모수	B	β	S.E	C.R	p
심리적 통제 -> 애착안정성	-.249	-.416	.067	-3.734	***
애착안정성 -> 자기조절능력	.459	.223	.217	2.1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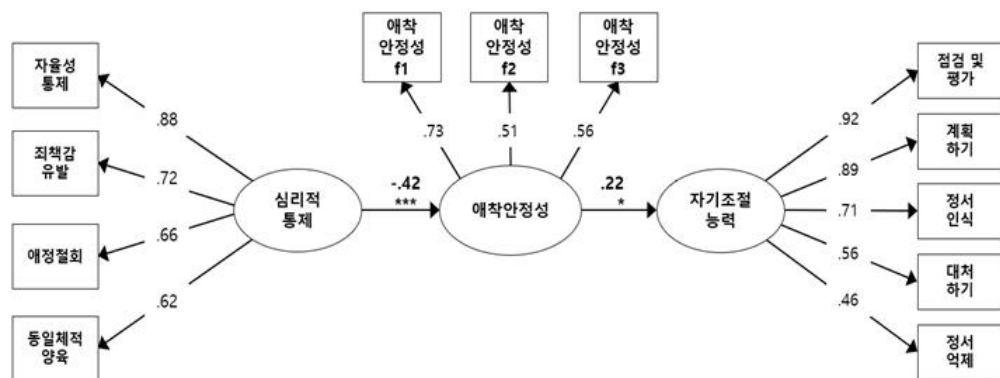
* $p < .05$. *** $p < .001$.

표 9. 여아의 경로계수

(N=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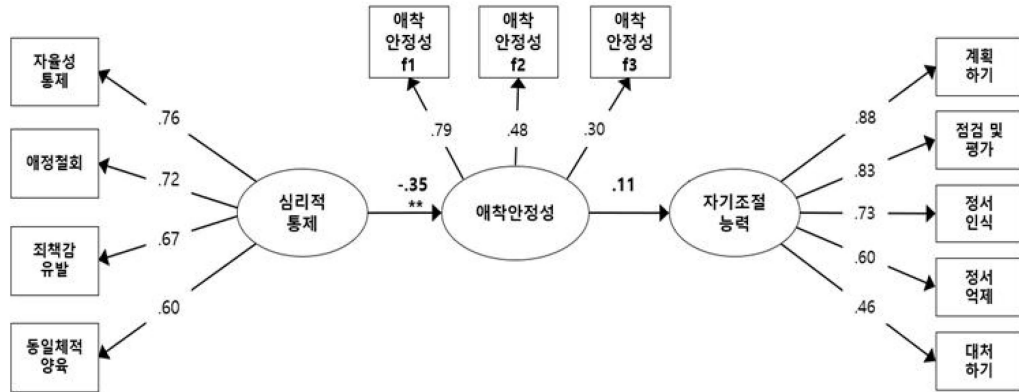
모수	B	β	S.E	C.R	p
심리적 통제 -> 애착안정성	-.265	-.352	.083	-3.173	**
애착안정성 -> 자기조절능력	.180	.106	.176	1.017	.309

** $p < .01$.



주: 오차항 생략, ** $p < .01$. *** $p < .001$.

그림 3. 남아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주: 오차항 생략, ** $p < .01$.

그림 4. 여아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표 10. 성별에 따른 모수 간에 Critical Ratio의 차이

	C-R 차이
심리적 통제 -> 애착안정성	0.150

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0 참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첫째,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정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두 변인의 조절 효과로 인해 청소년은 의지적 통제의 기능 수준이 낮아지므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는 것은 자신을 통제할 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Xiang & Liu(2018)의 연구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엄주하(2014)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고, 이러한 낮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과도한 불안과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되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비록 엄주하(2014)의 연구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의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부 하위변인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가할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유아는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절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상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의 형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김충일 등, 2015),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할 때 심리적 통제의 양육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모형의 구조적인 차이는 없으나 경로계수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통해 유아의 계획하고 점검 및 평가하는 인지조절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조절의 통합적 개념인 자기조절능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박은혜, 2018; 손경화,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 문제의 결과는 평균에 의한 차이가 아닌 어머니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라는 변인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에서의 분석이므로 기존의 선행 연구와의 유사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아와 여아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완전 매개하는 본 연구모형은 남아와 여아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을 검증한 것이다. 유아기는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양옥승, 2006)임을 고려하여 유아기 발달 단계에 맞춘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설명할 때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더불어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검증된 연구모형에서의 남아와 여아 간 경로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완전 매개하는 본 연구모형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델임을 검증하였으므로, 어머니 심리적 통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 양육자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을 현재 수준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교류적 관점에서 양육행동과 애착의 상호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연구가 부족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실시된 연구임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동일한 결과의 입증에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일부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자기조절능력의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유아의 애착안정

성의 매개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를 통한 자료수집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한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자기조절능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통해 그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변인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유아기에도 심리적 통제가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님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곽윤정 (2013). *내 아이를 위한 두뇌발달 보고서*. 서울: 지식너머.
- 권수정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수연 (2019).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 (2009).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및 또래*

- 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희 (2018). 어머니의 심리 및 행동통제가 유아의 정서조절, 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일, 장유진, 이강이 (2015). 유아기 부모를 위한 심리적 통제 양육 척도(Psychological Controlled Parenting Scale for Childhood parent: PCPSC) 개발 연구. 유아교육 2015, 24(2), 23-38.
- 김혜숙 (2018). 전래놀이를 활용한 유아 자기조절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삼철 (2019. 11. 06). 헬리콥터 맘과 캥거루족. 매일 춘추. <https://news.imacil.com/Satirical/2019110610035673985> 에서 2019년 11월 28일 인출
- 박선희 (2005).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생활능력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2019). 유아의 자기조절 관련 요인의 메타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박지현, 송하나 (2010).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5(2), 49-72.
- 박혜경 (2014). 어머니 대모 애착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발달 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은희 (2011).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경옥 (2017).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교사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경화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 (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양옥승 (2011). 유아 자기조절 측정척도의 개정. 유아교육학논집, 15(5), 383-401.
- 양옥승 (2013). VPE 프로그램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3(6), 451-464.
- 양옥승,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변인간의 관계분석. 유아교육연구, 15(2), 45-161.
- 엄주하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옥, 조유나 (2014). 유아 수면의 질이 정서

- 조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 교육연구**, 6(1), 21-40.
- 이민국 (2011). 유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시형 (2013). 아이의 자기조절력. 서울: 지식채널.
- 이영숙 (2015). 어머니 심리통제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순 (2009). 유아의 애착유형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성. 충북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백지은 (2004).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49-168.
- 임윤주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진, 이강이 (201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이 유아의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5), 208-209.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재은, 이종향 (2012).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언어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0(3), 185-203.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 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정, 정주선 (2011). 유아-어머니 애착유형에 따른 놀이특성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교육**, 20(1), 251-264.
- 최민수, 김명복 (2012). 유아교육기관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과 자기조절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59-382.
- 황소연, 방희정 (2012). “유아의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人間發達研究** 19(3), 147-165
- 황윤세 (2007). 유아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PA.
- Barrett, P. M., & Holmes, J. (2001). Attachment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cognitive interpretation and response bias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 51-64.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41-1050.
- Grewal, D., & Salovey, P. (2005). Feeling smart: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merican Scientist*, 93(4), 330-339.
- Hastings, P. D., Rubin, K. H., & DeRose, L. (2005). Links among gender, inhibition, and parental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51(4), 467-493.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5), 1168-1189.
- Leondari, A., & Kiosseoglou, G.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90(3), 1015-1030.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1). New York: Basic Books.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Vohs, K. D., & Baumeister, R. F. (2004). Understanding self-regulation: An introduction. In Roy, F., Baumeister, & Kathleen,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3-10). New York: Guilford.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41-65.
- Xiang, S., & Liu, Y. (2018). Understanding the joint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secure attachment styles: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adolescent autonom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6(12-18), 1041-1050.

1 차원고접수 : 2020. 01. 07.

수정원고접수 : 2020. 03. 07.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7.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er's self-regulation

Kang Byung-Ae

Park Ung-Im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preschooler's self-control and verify whether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mediates this relationship.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25 mothers of 3 to 5 year old children attending a daycare center in some regions of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35 class teachers of these preschool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MOS 21.00 to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completely mediated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preschooler's self-regulation. That means,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an indirect impact on preschooler's self-regulation through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as opposed to having a direct impact. Second, no inter-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paths between male and female preschoolers. In other words, self-regulation developed in male and female preschoolers through the same path. This confirms that the study model is applicable to both male and female preschoolers. To sum up,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table attachment with mothers, who are the primary caregiver, for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serves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the negative impa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preschooler's self-regulation. Further, a correct understanding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is essential for adaptive growth and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Keywords: psychological control, self-regulation, attachment security